

2006. 11. 22

# 아베 내각부와 일본의 여성정책

강연/도쿄대 사회학과  
 우에노 치즈코 교수  
 정리/본원 동향분석센터  
 정혜선 연구원  
 hsjeong@kwdi.re.kr

〈 이 글은 지난 10월 25일 본원 동향분석센터에서 주최한 ‘해외여성학자들과의 만남’ 에 초청된 우에노 치즈코 교수의 강연을 토대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1. 일본에 부는 반-여성주의

최근 일본사회는 “젠더-프리” 논쟁으로 시끄럽다. “젠더-프리(gender-free)”란 성차에 대한 편견이 없는 상태, 즉, ‘gender bias-free’의 일본식 조어이다. 1990년대 중반 ‘젠더’라는 개념이 일본 사회에서 등장하면서 유행을 타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의된 바가 없어 학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다. 교사나 일부 지방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이 말은, 타고난 성별에 의해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이 강요되지 않고, 남녀의 성차에 기반을 둔 편견, 이성애와 동성애에 대한 편견, 성별로 인한 차별 등에서 자유로울 것을 의미한다.

“젠더-프리”가 논란거리가 된 것은 지난 2004년 8월 도쿄도의 교육위원회가 이 용어의 사용을 금하면서부터이다. 위원회가 ‘“젠더-프리”라는 용어는 남녀의 성차를 전면 부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 과정에서 2005년 도쿄도의 한 시에서 인권 강의 시리즈를 기획하고 우에노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자, 이 사업을 후원하고 있던 도쿄도 정부가 우에노 교수는 “젠더-프리”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른 강사를 섭외하도록 종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를 언론 탄압으로 여기고 1년 동안이나 도쿄 도에 대하여 싸움을 계속하였고, 우에노 교수는 지난 10월에 마침내 처음 준비했던 강의를 마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젠더-프리”라는 용어가 정확하지 않은 표현과 부정적인 어감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점을 영리하게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보수진영을 비판한다. 일본의 보수 단체들은 “젠더-프리”가 남녀의 성차를 부정하고, 과도한 성교육과 무분별한 성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서양에서 수입된 “젠더(gender)”라는 용어가 의사소통과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된다는 환원주의를 내세우며, 새롭게 여성주의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 여성주의에 대한 공격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지적으로 점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여성 관련 부처나 정책을 없애는 등의 시도는 없지만, 대신 아베 총리가 ‘풀뿌리 시민사회 조직의 보수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한 것처럼, 사실상 여성정책의 성격을 바꾸고 서서히 사라지게 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여성주의적인 인물이 담당하던 지위에 점차로 보수진영의 영향력 있는 인사를 임명하거나, 여성 센터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올해 초 한 여성 센터에서는 도서관에서 소장하던 여성 관련 서적 153권을 폐기하는 일이 있었다. 학계와 출판사, 여성단체들이 연합하여 반대운동을 펼친 결과로 서적 폐기는 무효화 되었지만, 문제의 서적들이 섹슈얼리티, 이혼, 한부모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변화하는 성 역할에 대한 보수의 분노가 향후 어떻게 표출될 것인지 짐작하게 한다. 보수진영은 서양에서 수입된 페미니즘이 일본 전통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페미니즘이 저출산, 비혼, 가정 파탄 등의 원인이 되는 사회의 적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1999년 국회에서는 여야의 만장일치로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양성평등 사회로의 기틀을 마련한지 이제 겨우 6년여가 지난 지금, 여성주의에 대한 공격이 이같이 거세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 2. 세계화와 강한 국가 신드롬

지난 9월 말 내각에 입성한 아베 신조 총리는 첫 번째 전후 세대 총리로서 역대 최연소이지만, 해외 언론들도 극우파 국가주의자라며 경계하는 인물이다. 특히 여성정책에 있어서, 그는 특히 총리가 되기 전부터 양성평등 정책에 역행하는 활동을 펼쳐온 인물이다. 아베는 2004년 “과도한 성교육 및 젠더-프리 교육 저지”라는 자민당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기도 했으며, 총리로 취임한 직후 보수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타카이치 사나에를 양성평등 장관<sup>1)</sup>으로 임명하였다. 타카이치 장관은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가족의 해체를 의미한다”고 발언하며 남편 성 따르기에 대한 정부 규제를 주장하는 인물이다.

이처럼 아베 총리는 일본의 여성주의자들에게 악몽과 다름없는 인물이지만, 전후 세대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특히 65%나 되는 젊은 여성들이 그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일본 사회는 90년대부터 계속된 경제 침체, 실업률 증가, 고용 불안, 벌어지는 소득 격차, 중년 남성의 자살률 증가 등의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비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얼마 전 한 설문조사에서 48개 국가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 싸우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베트남에서는 94%, 한국에서는 74.4%가 “그렇다”고 답한 것에 반해, 일본에서는 15%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를

1) 일본의 양성평등 장관은 별개의 부(部)를 갖지 않으며, 하부 행정조직 없이 장관직만 존재한다. 기존에 Minister of State for Gender Equality and Social Affairs였던 양성평등 장관은 아베 내각부 하에서 Minister of State for Okinawa and Northern Territories affair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novation, gender equality, social affairs and food safety로 변경되었다.

두고 일본의 우익은 전후 세대의 평화주의적 교육이 낳은 국가적 재난이라며, 한국과 같이 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등 강한 국가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강한 일본” 건설을 주장하는 아베 총리가 나타나 보수 우익과 전후 세대 젊은이들 모두의 지지를 한 몸에 받게 된 것이다. 아베 총리의 야심은 패전국의 이미지를 벗고 세계에서 존경 받는 “강한 일본”을 건설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평화헌법 개헌, 재무장을 통한 보통국가 건설, “할 말은 하는 주장하는 외교”와 유엔에서의 영향력 제고를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베가 순식간에 정치인으로서 급성장하게 된 것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사건과 지난 7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면적으로 공격하며 일본 국민의 내셔널리즘에 호소하고, 미일동맹, 대북 강경론을 펼친 전략이 성공을 거둔 탓이라고 평가한다. 때마침 그가 총리에 당선되자 곧 북한에서는 핵실험을 강행하여 아베의 국가주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정책보다는 이미지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여당에 대한 지지기반은 그리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다수당의 위치를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아베 정권의 기로가 될 것이다. 아시아 외교 등과 같은 측면에서 고이즈미가 보여줬던 한계를 극복하고 당내 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자민당은 내년 선거에서 패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본 정치가 더욱 보수주의로 치달고 있는 배경에는 이처럼 정치적인 위기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고이즈미 전 총리와 달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아베 총리가 더 좋은 정치 파트너라고 보는 시작도 있다. 하지만 그는 관방장관을 지내던 시절에도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적극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던 인물이다. 고이즈미 전 총리가 신보수주의를 표방하며, 취임 직후부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선택했던 것은 당내의 취약한 기반을 극복하고 우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화주의에 입각하여 신사를 참배하며, 이는 총리로서가 아닌 개인의 선택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이면에 숨은 메시지는 주변국의 비난에서 불구하고 참배를 강행하는 용기,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일본의 담대함이었다. 곧 다가올 선거 등 많은 도전을 감내해야 하는 아베 총리는 주변국과의 외교 정상화라는 고이즈미 내각의 숙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만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를 쟁점화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에는 새롭게 힘을 얻고 있는 반동진영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전쟁을 경험한 고령자 층이나 신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전후 세대와는 달리, 젊은 반동진영은 인터넷으로 여론을 형성하며 성차별주의와 국가주의, 인종차별주의를 유포하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사회적 소수로서 위기에 처한 집단이라고 인식하지만, 사실 일본사회에서 이들은 도덕적 다수를 차지한다.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대체로 암묵적 다수가 되기 마련인 보수진영과 달리, 반동진영은 사회 변화에 역행하고자 하는 그들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매우 행동적이며 목소리도 높다. 때문에 비록 수적 소수일지라도 그들의 힘은 세며, 점점 그 세력이 커지고 있다.

여성주의에 대한 공격은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보수반동은 페미니즘 때문에 저출산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으며, 젊은 미혼 여성은 이제 공히 “국가의 적(enemy of the state)”이 되었다. 국가주의를 강조하는 우익의 목표는 일본을 강한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다원주의를 내세워 가족이라는 가치를 파괴하고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페미니즘”과 “신자유주의와 사회 간극을 조장”하는 여성들이 배척해야 할 대상이다.

고이즈미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통해 일본을 어둡던 경제침체에서 끌어내었다. 하지만 그의 신자유주의는 결국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했고, 그 이익은 자본가에게, 그 손실은 노동자에게 전가하였다. 고용을 창출해내지 못하는 경제성장은 젊은이들과 여성에게서 안정된 직장에 대한 꿈을 박탈하고, 대신 이들을 프리타, 니츠<sup>2)</sup> 등으로 대변되는 고용 불안정의 시대로 몰아넣었다. 처음부터 남성과 다른 조건에서 출발하는 젊은 여성에게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은 특히 높기만 하다. 과거에는 아무리 작은 사무직 일이라도 한번 고용되면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었지만, 오늘날의 젊은 여성들은 그러한 기회조차 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중년 여성과 젊은 여성 사이에 긴장감마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화와 신국가주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젊은이들은 오히려 아베와 같이 강한 지도력을 구현하는 인물이 일본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 3. 나가며

최근 일본의 개호보험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개호보험, 즉 수발보험(care insurance)은 그동안 여성의 당연한 의무로 여겨지던 무임금 돌봄 노동에서 여성을 해방시키고 동시에 여성에게 임금 노동의 일자리를 창출해낸 매우 성공적인 정책이다. 현재 한국에서도 이를 모델로 수발보험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군가산점 제도 폐지,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등과 같이 다양한 여성정책을 개발해왔다. 그 과정에서 보수진영의 공격도 절대 만만치 않았겠으나, 한국은 분명 여성정책에 있어 일본보다 훨씬 앞선 사회가 되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유교문화라는 비슷한 배경에서 여성정책을 개발한 국가이다. 또한 양국의 여성주의는 페미니즘을 서양에서 잘못 들여온 것이라고 비난하는 가부장적 보수진영의 공격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양국이 서로의 모델을 본받아 여성정책을 발전시킨다면 이 같은 불필요한 비난을 피하면서 여성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간 비교 연구가 향후 양국의 정책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성들은 하나로 묶일 수 없는 집단이며, 특히 일본 여성계는 한국과 달리 그동안 하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익의 공격이 거세지자 학자, 여성단체 등이 서로 연대하여 전략을 세우고 함께 행동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여성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 이 ‘허니문’이 끝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의 사례가 한국의 여성계에 많은 시사점을 갖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2) 프리타(Freeter)는 “free arbeiter” 라는 일본식 조어의 줄임말로써, 정규직보다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선호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일본에서 프리타의 수는 2백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반면, 니츠(NEETs: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는 졸업 후 진로를 개척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젊은이를 칭하는 말로서, 2005년 현재 일본 내각부는 니츠가 86만여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